2026.01.12

해외주식 Brief

중간선거도 이기고 싶은 탐욕왕 트럼프의 정책 비틀기

해외주식 Brief

[해외주식] 박윤철 2122-9201 nzc888@imfnsec.com

Check Point

25년에는 투자에만 신경 썼던 트럼프 행정부. 26년에는 민생회복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 소비재의 광범위한 수혜 예상
단, 국가차원 AI 투자경쟁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장기적으로 민생회복 소비 테마는 선별적인 접근 필요
26년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25년과는 다른 여러 급진적인 정책적 시도에 유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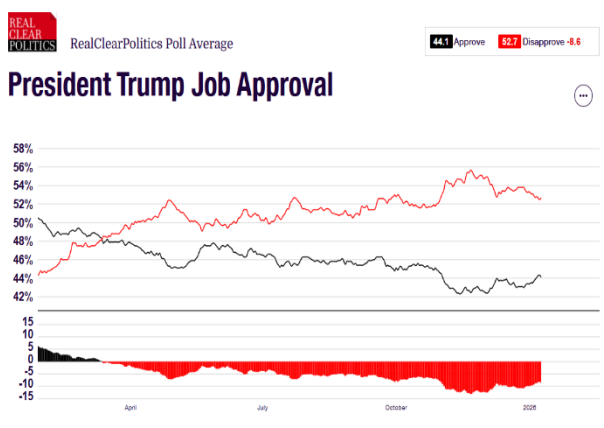
25년엔 투자, 투자, 투자에만 집중한 트럼프. 이제 26년 트럼프의 장기적인 시선은 민생회복에 있다

작년 말 지방선거 패배 이후 AI 등 투자확대에만 신경 쓰던 트럼프 행정부는 조금씩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 저소득층 대상 1인당 최대 2000달러 세금감면, 커피 및 바나나 등 농산품 관세인하, 메디케어 약가 인하, 대중 H200 수출 허가 등 노골적으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한 것이다.

연초에도 동일한 정책, 오히려 보다 급진적인 행보를 통해 민생 지원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메디케어에 이어 메디케이드 약가 인하를 추진, 지난주에는 일부 공화당 의원이 당 지침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지며 미 하원에서 오바마 케어를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또한 민생을 신경 써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관련 정책도 특징적이다. 기관투자자의 주택 매입을 제한 추진을 발표하며 가격통제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첫 주택 구매자의 대출 규제 완화, 약 2000억달러 규모의 MBS 매입을 언급했다. 노골적으로 중 저소득층 소비심리의 핵심인 의료와 주택을 타겟으로 한 정책을 발표하며 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잃어버린 표심을 회복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관련주의 반등이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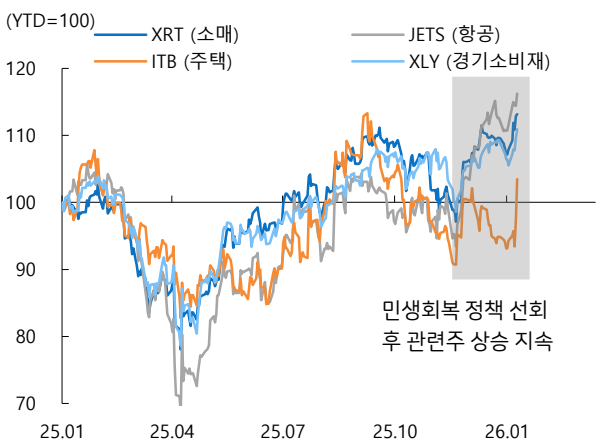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란 시위 등 지정학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지만 중국, 러시아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은 아니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소비심리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던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면적으로 민생을 훼손하는 정책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림1. 트럼프 지지율 추이: 민생회복 정책 이후 지지율 반등이 나타났으나 비우호적 시각이 여전히 우위



자료: realclearpolling,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작년 말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생회복 정책 발표하자 관련주 상승세 지속 중



자료: Refinitiv, iM증권 리서치본부

물론 제1원칙은 글로벌 패권 다툼: 소비재의 광범위한 수혜는 단기적. 결국 양극화가 심해지는 방향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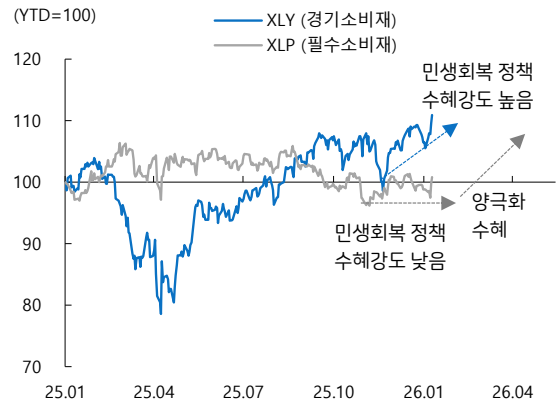
민생을 위한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글로벌 국가 전반의 제1원칙이 패권 다툼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2027 회계연도 국방비를 기존보다 50% 이상 증액한 1조 5000억달러로 할 것을 제안한 것이 그 예시다. 거기에 더해 기술 패권의 핵심은 AI에 있는 상황에서 AI,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와 규제완화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선이 민생으로 일부 넘어간 것은 맞으나, 정해진 예산에서 자금을 분배하는 방식이 아닌 예산(유동성)을 확대해서 분배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등 어느 것도 놓치기 싫어하는 탐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연준 장악을 통한 금리인하를 시도 중으로 AI 투자와 관세가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감축을 유도하고 있어 금리인하의 근거가 되고 있다. 물론 동시에 인플레이션 위협은 증가하고 있지만 금리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단기채 매입, QE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마치 21년 말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철회했듯이 인플레이션 위협을 정부, 연준이 본격적으로 인정하기 이전엔 기본적인 방향은 완화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광범위한 소비재 전반의 상승을 주도할 전망이다. 단, 인플레이션 위협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론 경기소비재 보다는 필수소비재의 우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어떤 정책을 펼치던 AI 투자가 배경이 되는 이상 양극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표심을 위해 민생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투자와 민생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의 결과는 양극화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는 중간선거 기간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박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간선거 패배가 예상된다면 오히려 그 이전에 민주당이 반대할 만한 급진적인 정책 시도가 다수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거기에 더해 국방비 증액 시도에서 예상해 볼 수 있듯이 양극화라는 내부의 적을 전쟁, 지정학 갈등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6년은 중간선거라는 성적표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비틀기에 시장이 요동치는 장세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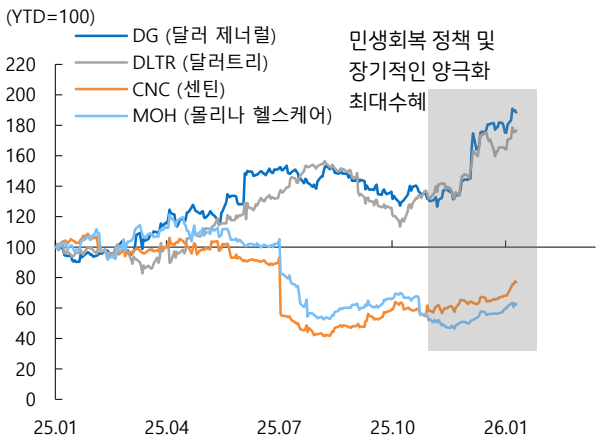
정책에 따른 변동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론 우주, 방산, 에너지 등 트럼프 주도 테마에서 트레이딩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론 정치적으로 안정성 높은 공통분모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중 저소득층 민생지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추진해야만 하는 정책인 동시에 장기적으론 일부 기득권을 제외한 광범위한 계층의 구매력 감소 (양극화)도 불가피하다. 이는 곧 장기적으로는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고소득층까지도 매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DG, DLTR과 같은 달러샵 (저소득층 대상 할인매장)과 정부에게 지원받아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CNC, MOH와 같은 기업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AI외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되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추가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그림3.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방향으로 소비관련주 수혜 지속전망. 단, 장기적으론 경기소비보다는 필수소비재 상대우위 예상



자료: Refinitiv,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저소득층 대상 할인유통 및 의료보험사 주가: 장기적인 관점에선 민생정책 및 양극화 동시수혜 테마에 집중할 필요



자료: Refinitiv,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박윤철)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